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

www.kvca.or.kr

KVCA 이슈

[4차 산업혁명 시리즈] 사물인터넷(IoT)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벤처캐피탈 법률 Q&A



Contents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2017 September vol.111

03

뉴스 & 리뷰 NEWS & REVIEW

-
- 04 KVCA 소식
 - 2017년 제2차 외국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 05 연수원 소식
 - 2017년 벤처캐피탈 스캇 아카데미(3회차) - 4차 산업혁명 과정
 - 9월 교육 안내
- 06 투자 협력·M&A
 - 해양수산업 투자유치 지원
 - 벤처투자 사랑방
 - M&A 활성화 지원 사업
- 07 R&D사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 08 협회사 동정
 - 경제부총리 간담회 참석
 - 2017 벤처썸머포럼 참석
 -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참석
- 09 회원사 소식
- 11 투자 유망기업 탐방
 - (주)이티에스

13

이슈 ISSUE

-
- 14 [4차 산업혁명 시리즈] 사물인터넷(IoT)
- 17 IFRS9 개요 및 도입에 따른 VC 업계 영향
- 19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 20 벤처캐피탈 법률 Q&A

발행일 2017년 9월 10일(통권 111호 9월)

발행인 이용성

편집인 오세현

발행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전화 02)2156-2100 홈페이지 www.kvca.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1

시장 동향 Market Trend

-
- 22 7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 28 (VC 포커스) 해외 2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 32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뉴스 & 리뷰

NEWS & REVIEW

2017년 제2차 외국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17년 제2차 외국투자기관간담회가 8월 29일(화) 본 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Draper Athena, Fenox Venture Capital, Aramco Asia 등 외국투자기관 10여 개사가 참석하였으며, 글로벌스타벤처 육성사업 선정기업 2개사의 IR, “IFRS9 도입에 따른 국내 VC 업계 영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 그리고 최근 벤처투자 동향 및 기타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교육 안내

- **교육명**
2017년 남부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 **운영 형태**
3일 출석 + 1박 2일 합숙 / 2박 3일 합숙
- **일자**
9월 4일(월) ~ 8일(금) /
9월 13일(수) ~ 15일(금)
- **대상자**
남부권 창업기관(선도대학, BI),
엑셀러레이터 기타 등
- **과정 개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교육명**
2017년 벤처캐피탈 Planning Manager
초급과정
- **운영 형태**
6일 오후 출석
- **일자**
9월 20일(수) ~ 27일(수)
- **대상자**
창투사, LLC, 신기술금융사 등 기획관리 및
경영지원실 담당자
- **과정 개요**
VC 기획관리부서 담당자들의 실무 관련
정보 습득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신청 기한**: 9월 6일까지
- **신청 방법**
본 회 홈페이지(www.kvca.or.kr)
온라인 신청

2017년 벤처캐피탈 스팟 아카데미(3회차) -
4차 산업혁명 과정 개최

최근 4차 산업이 전 산업계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벤처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시각에서 업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음 스팟 아카데미는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 **일자** 2017년 8월 31일(목) (1일 출석)
- **장소**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 용	강 사
4차 산업혁명	미래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이경주
4차 산업혁명,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에게 듣는다	비에이파트너스 상무 이정석



해양수산기업 투자유치 지원

2017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본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수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엄선된 투자 유망기업 15개사의 투자설명회와 투자·M&A상담회, 투자 의향서 체결식,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발족식이 진행되었으며, 해양수산기업 100여 개사,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기업투자자 등 약 70여 개의 투자기관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에 벤처캐피탈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해양수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사랑방

8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2일 쓰리디팩토리 등 중소벤처기업 14개사와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8월 벤처투자 사랑방을 개최하였다. 벤처투자 사랑방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대면 상담을 하면서 투자절차나 전략 등에 대해 투자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나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기업에 투자기관이 직접 투자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벤처투자 사랑방이 투자유치에 대한 마중물인 셈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투자 사랑방 안내페이지(cafe.kv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 활성화 지원 사업

Ⅰ M&A 뉴스레터 창간호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M&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M&A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M&A 뉴스레터(제1호)'를 첫 발간하였다. 본 회를 비롯하여 M&A 지원센터, 자문기관 등 M&A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M&A 뉴스레터는 M&A 관련 통계기관이나 자료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이나 양질의 M&A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한이 있는 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및 유관기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식 M&A 정보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M&A 주요 뉴스 및 M&A League Table을 통해 17년도 상반기 M&A 시장 동향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M&A 거래정보망 등록 DB 현황을 업종별, 지역별, 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M&A 지원센터 및 자문기관의 주요 동향 및 추천 물건(4개 기업)을 소개함으로써 M&A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M&A와 관련된 전문가 기고와 세제, 법률,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Q&A도 수록하였다.

M&A 뉴스레터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M&A와 관련된 흥미로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구독 및 제작 참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4)로 연락하면 된다.

R&D 사업

NEWS & REVIEW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Ⅰ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VC 간담회

중소기업에 미래 유망기술에 R&D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중소기업부에서 수립하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개편에, 투자심사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8월 23일 본 회에서 개최되었다. 시장니즈를 반영한 기술로드맵 구축을 위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유망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또한 중소기업 R&D 발전을 위한 제언도 모아졌다. 간담회에는 투자심사역 5명 외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이스평가정보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본회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개편 진행 상황에 맞춰서 투자심사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 간담회 참석

본 회 이용성 회장은 8월 18일 팁스타운 해성빌딩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경제부총리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유관기관 대표,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이번 행사는 창업기업 성공사례 발표를 포함하여 벤처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7 벤처썸머포럼 참석

8월 23일부터 사흘간 제주 서귀포(하얏트 리젠시 제주)에서 개최된 벤처썸머포럼에 본 회 이용성 회장과 오세현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은 '벤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하여 벤처·스타트업 CEO 및 임원, 벤처 유관기관 대표, 정부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 참석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에 본 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 일자리혁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하였으며, 이날은 위원 위촉장 수여, 일자리위원회 경과 및 사업추진 계획 보고,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I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 전	변경 후
대성창업투자	김영훈, 강명구	김영훈, 박근진 (각자 대표)

네오플렉스

‘슈퍼맨 투자조합 3호’의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됐다. 투자조합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주목적으로, 최소 200억 원이 조성되며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50억 원을 출자한다. 운용사의 의무출자(GP커밋) 비율은 결성액의 10%다. 경기도는 회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시 결성총액의 10% 이내, 총 30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한다.

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블루 6차 산업화 투자조합 1호’를 해산했다. 조합의 약정총액 규모는 100억 원으로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70억 원을 출자받아 만기 8년으로 결성한 조합이다. 결성한 지 1년도 안 된 조합이 조기 해산된 결정적 이유는 조합 결성 후 LP가 탈퇴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블루그린인베스트는 농식품 모태펀드 규정에 따른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조기 해산됐기 때문에 3년 동안 농식품 모태펀드 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됐다.

송현인베스트먼트

설립 후 처음으로 약정총액 1,000억 원이 넘는 벤처조합 결성을 추진한다. 현재 결성 작업 진행 중인 ‘e-신사업 성장기업 육성펀드’ 규모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몇 기관으로부터 출자 약속을 받아놓은 상황으로 연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벤처조합 결성이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디벤처스

지식재산 전문 벤처캐피탈 아이디벤처스가 매물로 나왔다. 모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와 설립 5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걸을 전망이다. 모회사의 부진한 실적이 결국 아이디벤처스 매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이디벤처스는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2012년 납입자본금 50억 원으로 만든 창업투자회사다. 지식재산권(IP) 전문회사가 직접 창업투자사를 만든 첫 사례였다. 한편 아이디벤처스가 운영하는 ‘IDV IP Value-Creation 투자조합’과 ‘IDV IP 창조성장 투자조합’은 와이엠텍의 구주 10억 원을 인수했다. 1998년 설립된 와이엠텍은 릴레이 생산 전문업체로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사용되는 직류 고전압 릴레이를 개발했다.

아주아이비투자

‘아주-SHC 상생 기업 4호 투자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우리손에프앤지 주식 79만 3,685주(지분율 1.14%)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매각 후 회수한 돈은 총 19억 1,600만 원이다. 아주아이비투자는 우리손에프앤지 CB를 지난해 8월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조금씩 장내 매도 방식으로 회수를 시작했다. 이번에 매각해 회수한 금액까지 총 62억 5,600만 원을 거둬들였다. 아직 원금 회수는 못 한 셈이다. 다만 남은 지분을 고려하면 90억 원을 투자해 총 140억 원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토박스코리아의 보유지분 락업이 풀리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4월 토박스코리아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엑시트 창구가 마련된 데다, 투자원금의 7배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내 엑시트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제이월드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에 투자했다. 에스비아이는 ‘2014 KIF-SBI IT 전문투자조합과’ ‘SBI-KIS 2016-1호 투자조합’을 통해 30억 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웰컴-컴퍼니케이 모바일생태계 상생 펀드’를 통해 30억 원을 투자했다. 1998년 설립된 제이월드는 휴대폰 및 배터리의 방수, 방진, 절연 기능을 가진 테이프와 라벨을 비롯해 액정 및 내·외장에 사용되는 보호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HB 성장지원 M&A 투자조합’을 통해 파킹클라우드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90억 원을 투자했다. 90억 원은 주차 관제장비 제조업체 토마토전자의 인수자금으로 활용됐다. 2009년 설립된 파킹클라우드는 번호판인식(LPR) 기반의 무인 주차 관제장비를 선보인 이후 주차 관제장비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유일하게 상용화한 기업이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

총 100억 원을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으로 고바이오랩에 투자했다. 에이티넘이 가장 많은 50억 원이고, 컴퍼니케이 30억 원, 스톤브릿지 20억 원 순이다. 고바이오랩은 장내세균을 조절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늘리면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

160억 원 이상의 소액투자전문 펀드 출자를 확약받아 소액투자전문 펀드 결성 최소 요구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소액투자전문 펀드의 앵커 LP인 모태펀드가 제시한 최소 결성 금액(15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수치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7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결성했으며, 이번 소액투자전문 펀드 결성을 계기로 4년간의 누적 펀드레이징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유티씨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과 함께 외식 플랫폼 업체 오티디 코퍼레이션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70억 원을 인수했다. 확대되고 있는 외식시장 성장성에 공유 경제 플랫폼을 더한 독특한 기업구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2014년 설립된 오티디는 외식업 및 외식플랫폼 공급 전문 기업이다.

지애펅벤처투자

지애펅벤처투자의 '경남창조경제혁신펀드'와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 GS리테일 신성장투자조합 1호'는 닥터키친에 각각 13억 원, 10억 원을 투자했다. 2015년 설립된 닥터키친은 데이터 중심의 식이요법 전문 연구 기업으로 주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온 헬스케어 전문 벤처기업이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에스인베스터

부천시 산하 재단법인 만화영상진흥원은 케이비인베스트먼트와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이에스인베스터를 '만화 중심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이들 운용사에 각각 10억 원씩을 출자 약정했다. 올해 마련된 예산은 최대 35억 원으로, 기본적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사로 선정된 곳들에 출자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케이큐브벤처스, 동훈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케이큐브벤처스와 동훈인베스트먼트는 각각 10억 원, 유니온투자파트너스는 5억 원을 원더스에 투자하였다. 원더스는 서울 전 지역에서 단일가 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해당 투자금을 활용해 본격적인 자체 도심형 배송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 약정총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해외 투자사, 국내·외 바이오기업 등 추가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을 통해 '멀티클로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어 글로벌 이노베이션 펀드는 지난 6월 결성을 완료하고 운용을 시작한 벤처조합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 초기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형 제약사, 해외투자사 등이 LP로 참여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미래성장벤처펀드 제22호'를 통해 미국 게임 개발사 '슈퍼이블메가코프(Super Evil Mega corps, SEMC)'에 대한 100만 달러 추가 투자에 나선다. 2015년 첫 투자 이후 2년 만에 후속 투자다. 총 1,900만 달러(약 214억 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투자는 1차 투자에 나섰던 인덱스벤처스(Index Ventures)는 물론 제너럴 카탈리스트(General Catalyst Group) 등 벤처캐피탈과 슈퍼이블메가코프의 대표이사 등이 투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케이티비네트웍,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국내 최초로 이족보행을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Hubo)'와 관련된 각종 기술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레인보우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케이티비네트웍은 각각 35억 원을,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는 30억 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리지가 아닌 프리IPO 단계의 투자자다.

한국투자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우신벤처투자

5개 벤처캐피탈이 에이치엘비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자회사(LSKB)를 통해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아파티닙)'의 빠른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이끌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운용 중인 '한국투자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신탁펀드 '한국투자 Ace 투자조합', '한국투자 Beyond 투자조합' 등을 통해 총 60억 원을 투자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도 '미래에셋 좋은 기업 세컨더리투자조합 2호' 등 3개 펀드를 통해 에이치엘비의 CB 30억 원어치를 가져갔다. 이앤인베스트먼트는 고유계정과 '이앤에스와이 하이브리드투자조합'을 통해 에이치엘비의 CB에 15억 원을 투자했다. 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의 '코그니티브 유망서비스산업투자조합'과 우신벤처도 조합과 고유계정을 통해 각각 10억 원을 투자했다.

이차전지, Camera Glass 자동화장비의 Global Technology Reader (주)이티에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투자 유망기업은 독보적인 이차전지 제조 및 조립공정 기술과 함께 세계 최초로 CAMERA GLASS 적층 면취 기술을 개발한 (주)이티에스입니다.

담대한 도전으로 열어가는 미래

(주)이티에스는 윤진국 대표를 중심으로 8명의 창업 멤버가 천안 아산에서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이다. 이차전지 자동화 설비의 분당 생산량을 12ppm에서 30ppm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내외 배터리 생산업체에 생산량 증가, 원가 절감이라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부조직을 체계화하고 신규사업과 기술개발로 성장동력을 개척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 충남 아산시 (주)이티에스 회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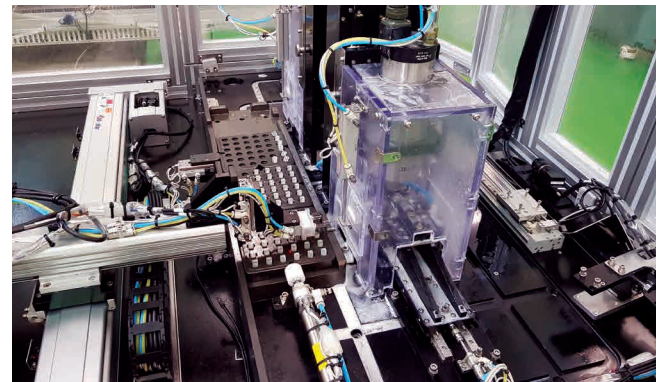
세계 최초 CAMERA GLASS 적층 면취 기술개발

최근 Mobile기기 제조사들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흐름은 Hardware의 기술 향상이라는 요구로 이어져, Camera 보호용 Cover와 지문인식용 박막형 Glass에 대한 Mobile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주)이티에스의 주력사업 부문 중 하나인 윈도우 사업부는 박막 유리 가공공정에서 강화층, 휜 정도(C/S) 유지를 위한 박막 유리 모서리 면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Mobile용 Camera Glass를 16매 이상 적층하여 측면을 동시에 가공하는 Edge 면취 기술은 (주)이티에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8건의 특

허를 출원하며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Camera Glass의 품질과 생산량 480UPH 이상, Chipping량 5% 이하, 형상정밀도 98% 이상으로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생산성을 높여 국내 및 해외 수출 등의 매출 성장세도 기록하고 있다.

● Mobile Camera Glass 16매 적층 Edge 면취 기술



이차전지 자동화 설비의 끊임 없는 연구개발 성과

(주)이티에스는 자동화장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기업이다. 창업 이래 전기차(xEV) Pack Line설비, 리튬이온 이차전지 (Li-ion Rechargeable Battery) 생산 자동화 설비에 지속적인 R&D 투자로 관련 특허를 출원(9건) 및 등록(4건)하는 등 기술력을 축적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LG화학 1차 협력사, 2016년에는 LG전자 1차 협력사로 등록하였다. 이차전지와 전기차 부품 주요 제조사인 LG화학,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과 설비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및 해외 생산라인에 설비를 수주, 공급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를 2020년까지 500만 대 보급한다”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육성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용 중대형 이차전지(xEV)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해외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Li-ion Battery Cell Package Line



Global 진출의 초석 (주) 베트남법인 설립

이차전지 자동화 설비 외에도 핸드폰 소재 가공 장비 및 가공기법을 개발하여 매출의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4개 사업부로 확장. 기업의 매출 안정성과 수익성 증가를 꾀하며, 지속적인 성장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주)이티에스 베트남 법인(ETS VINA CO.,LTD)을 설립하여 윈도우사업부문의 Camera Glass 생산과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바일과 LG이노텍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은 (주)이티에스가 베트남법인을 교두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M/S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주요 Mobile 제조사와 공급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한, 중국 남경, 폴란드 LG화학의 이차전지 중대형 자동화 생산설비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 이차전지 제조사와 활발히 공급계약을 협의 중이며, 중국 북경, 심천, 상해 등에서 자동화 설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300만 불 수출 탑 수상

2012년 창업하여 많은 시행착오 끝에 2014년 첫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R&D투자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사업 초기 수주 문제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도 연구개발을 늦추지 않은 이유는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해도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결국, 국내 배터리 생산업체의 수주로 이어지며 2016년에는 3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며 기술개발에 투자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2016년에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유치(10억), 중소기업진흥공단

FAMILY기업 선정 등 경영 부문에서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담대한 도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는 (주)이티에스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 2012 ● (주)이티에스 설립
- 2014 ● 클린사업장 인증
ISO9001, ISO14001 인증
-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15 ● LG화학 1차 협력사 등록
- 이노비즈(INNO-BIZ) 인증
- 2016 ● ETS 베트남 법인 설립
- 기술보증기금
투자유치(10억)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환사채 발행(10억)
- LG전자 1차 협력사 등록
삼백만불 수출탑 수상(한국무역협회)
- 2017 ● 중소기업진흥공단 FAMILY 기업 선정

※(주)이티에스는 협회가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기업으로 투자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역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이티에스 윤진국 대표(041-425-2102)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민석 대리(02-2156-2135)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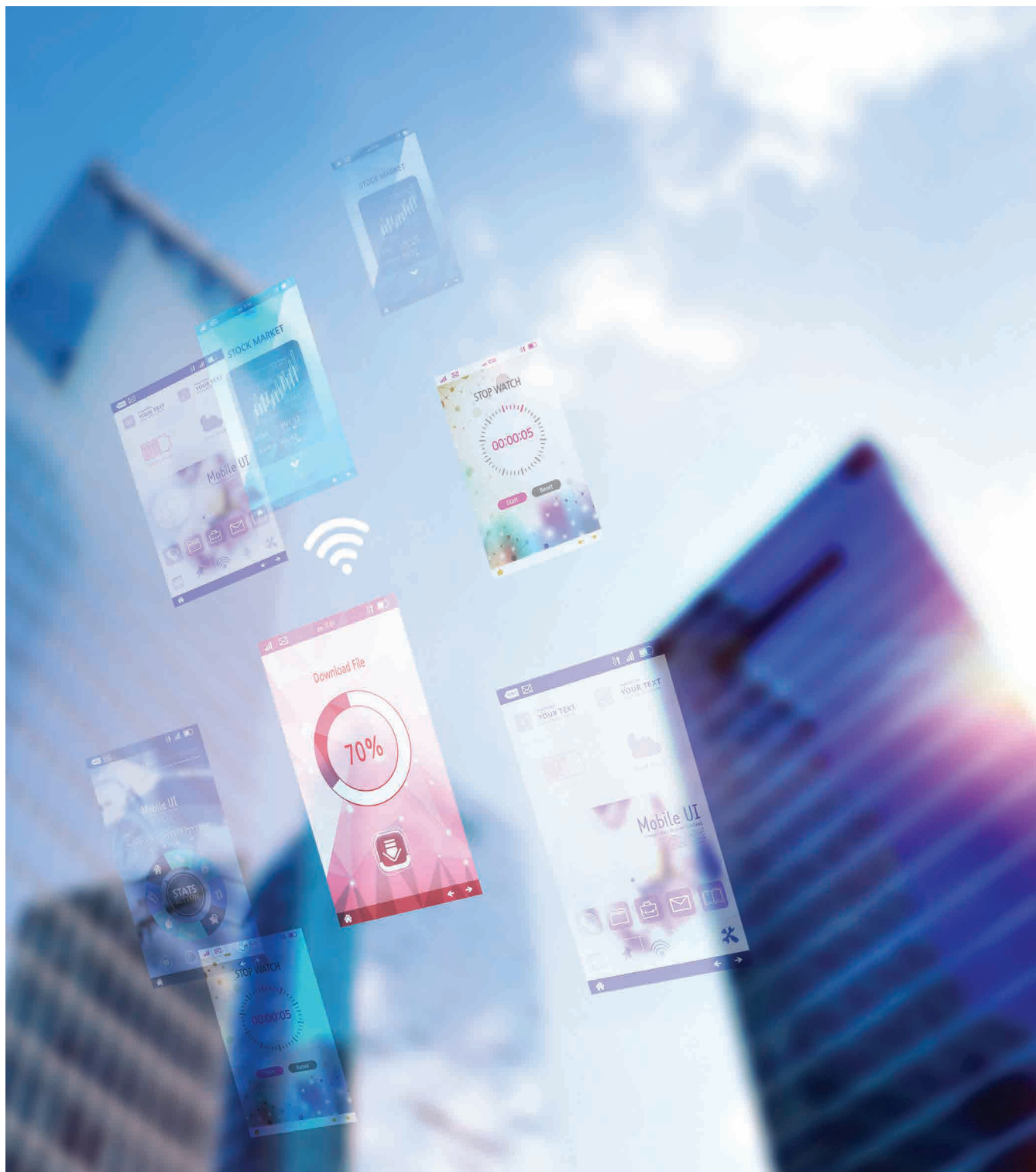
ISSUE

[4차 산업혁명 시리즈]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박원근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부장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란 용어는 1999년 MIT의 연구원이었던 케빈 애쉬튼이 처음으로 주창했다. 케빈 애쉬튼은 ‘대화와 소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사물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물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게 되면?’이라는 상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떠올려보고 구체화하여 표방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은 그 자체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융합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인프라 서비스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 통신 모듈이 일반 사물에도 탑재되고, 이를 인터넷 등으로 제어함은 물론 서로 간 교환한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는 형태를 사물인터넷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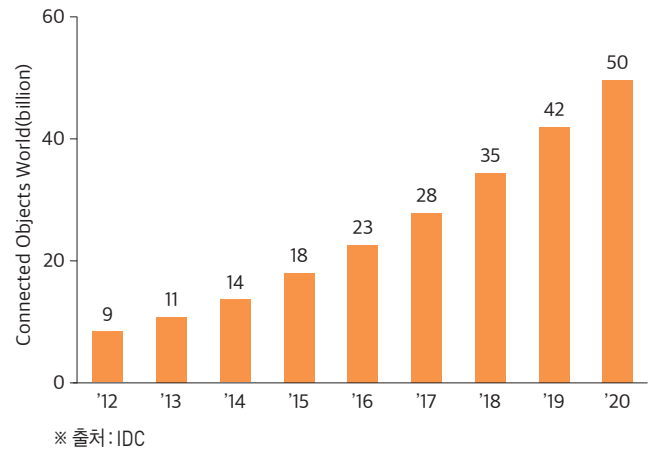
또한, 모바일 혁명 이후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이 진행 중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가 연계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ICBM (IoT-Cloud-Bigdata-Mobile)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고, ICBM을 통해 사람과 사물, 인터넷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기존 ICT로 불가능했던 현실 세계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ICBM 실현의 토대를 형성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현실 세계로 실시간 환류함으로써 현실 세계와 인터넷의 연결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ICBM 구현을 위한 선행 조건인 동시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사물인터넷은 향후 ICT 시장의 먹거리가 될 유력한 산업이다.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물인터넷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IDC는 2016년 전 세계 사물인터넷 관련 지출 규모를 2015년 대비 17.9% 성장한 7,370억 달러(약 834조 원)로 집계하였고, 2020년까지 연평균 15.6%의 성장세를 보여, 2020년에는 1조 2,900억 달러(약 1,516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스코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의 수가 2015년 182억 개에서 2020년 501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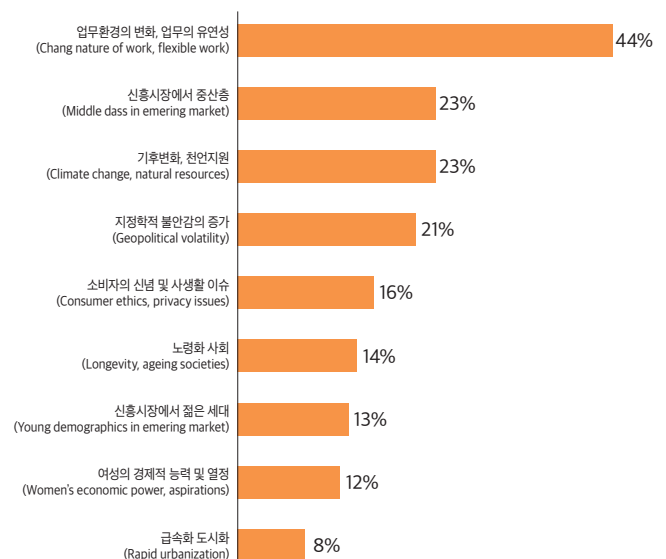
●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Connected objects)의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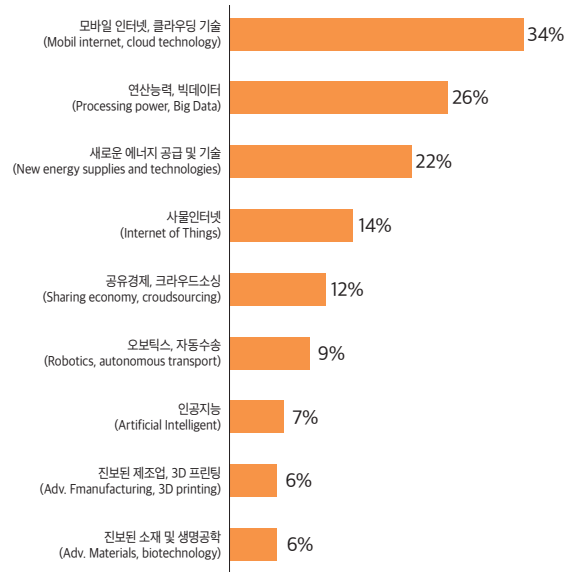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세상에 던져졌다. 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산업 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력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될 것이

● 사회-경제학적 주요 변화동인



● 기술적 주요 변화동인



※ 출처: The Future of Jobs(WEF, 2016) 재구성

라는 점이며 이로 인해 노동 수요의 감소와 일자리 문제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또한 인공지능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이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실제 환경과 사물을 조절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가 기술적 측면의 변화 동인으로 인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A.I.)’ 등이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과 확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데이터프리즘(DataPrism)은 2016년 예상되는 사물인터넷 트렌드를 소비자, 산업, 공공 등 3개 영역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소비자 영역에서는 스마트홈 단말 보급이 확산되어 스마트홈 해킹 사례가 더욱 빈번

하게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스마트홈 전용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고, 상당수 e커머스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사용자의 쇼핑 과정을 간소화시키는 커넥티드 커머스로의 진화를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산업 영역에서는 헬스케어 및 제조업 분야가 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통·소매업 분야에서 NFC 및 RFID 태그를 활용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공 영역에서는 상당수 국가가 저비용 고효율 방식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할 것이 예상되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사물인터넷 단말을 기반으로 디지털 부동산 관련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12월, “K-ICT 사물인터넷 확산전략” 발표를 통해 실증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물인터넷 활용·확산 촉진과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추진기로 하였다. 성장성과 국내경쟁력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활용이 유망한 분야를 선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사물인터넷 활용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향후 사물인터넷 활용이 유망하다고 예측되는 홈, 자동차, 제조, 의료, 에너지 등 우선 집중 지원할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이용료 절감, 센서 및 안테나 기술개발 추진, 사물인터넷 주파수 대역 추가 발굴 및 보안 제품 개발 공간·환경 지원 및 보안 테스트베드 제공, 사물인터넷 보안 가이드 제시를 통한 보안 제품 개발 비용 감소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 세계는 사물인터넷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현안 해결, 공공부문 혁신 및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 중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ICT, 다양한 혁신기업, 기술 친화적 국민특성 등을 갖춰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물인터넷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이에, 사물인터넷을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현안 해결 등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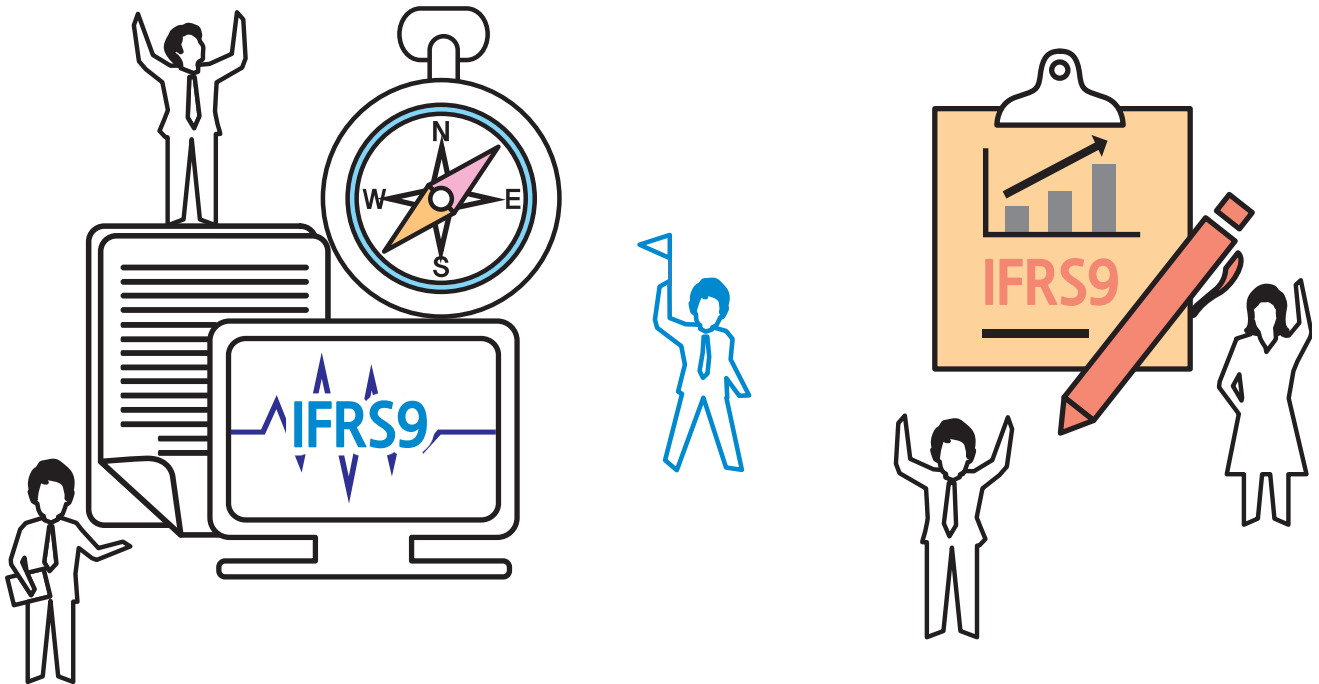
참고문헌

- IDC(2017. 1)
- 2016 사물인터넷산업 실태조사(미래부)
- “K-ICT 사물인터넷 확산전략”(미래부, 2016.1.18)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KISTEP)



박종대
삼화회계법인 부대표

IFRS9 개요 및 도입에 따른 VC 업계 영향



한국벤처투자(주)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모태펀드 추경 예산 8천억 원을 포함해 8천 700억 원의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벤처캐피탈 업계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는 이번 추경 예산 출자사업에서 청년창업과 재기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업, 지방소재 기업,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해 창업생태계 구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모태펀드에 의하면 한국모태펀드는 2005년 설립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12년 동안 약 2조 6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벤처투자시장에 공급하였으며, 벤처캐피탈은 이 자금을 마중물 삼아 중소·벤처기업에 1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벤처캐피탈 업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시장 확대와는 별개로 벤처캐피탈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부터 시행되는

IFRS9(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금융상품))의 적용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보통주 및 우선주(지분상품) 인수, 무담보 전환사채 및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채무상품) 인수 등인데, IFRS9은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관련 법률에 의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제외), 주권상장에정기업, 금융지주회사,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 등인데, 상장된 벤처캐피탈 또는 비상장 벤처캐피탈의 대주주가 K-IFRS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비상장 벤처캐피탈도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현행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회계기준(IAS39)에는 시가 산정이 쉽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취득원가를 허용해 왔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9에서는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IFRS9에서는 지분상품의 경우 원가측정의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공정가치 측정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활성 시장의 공시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원가로 측정 가능하나, IFRS9에서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특정 상황(공정가치 결정에 이용 가능한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고, 이용 가능한 공정가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 내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 추정치를 나타내는 경우)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금융기관이나 투자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 투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IFRS9 적용에 따라 초기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첫째, 공정가치 평가대상인 피투자회사의 경우 담당자의 결산 능력 부족으로 공정가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 있으며, 공정가치 평가를 위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업무가 부과되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둘째, 다수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피투자기업의 경우 평가 주체(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동일 회사에 대한 다양한 공정가치가 산정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왜곡현상이 생길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진다.

셋째, 투자 초기에는 J커브 효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투자 후 3~5년 후 투자성과가 결정되는 벤처캐피탈 업계 특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벤처캐피탈의 투자관점이나, 평가기관의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투자 초기 시점에 평가손실이 예상되는 등 벤처투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비용을 벤처투자조합에서 부담할 경우 일반 출자자(LP)의 수익성도 악화된다.

다섯째,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투자조합 초기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평가손실의 효과가 벤처투자조합 일반 출자자(LP)에게도 미치므로 민간 LP의 출자를 꺼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섯째, 투자 지분율이 작거나 구주매입 등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며 이럴 경우 공정가치 평가 자체가 어려워진다.

IFRS9의 또 다른 이슈는 벤처캐피탈이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또는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에 반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처분 시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지분상품 보유 기간에 평가손익을 자본계정인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계산하고 매도 시점에 처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IFRS9에서는 지분상품을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최초 선택하면 매도 시점에도 처분 손익을 반드시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캐피탈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성과가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될 경우에는 주가 또는 공정가치 평가손익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의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분증권 매매차익이 발생되더라도 당기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업계가 정부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은 물론이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시점에 IFRS9의 도입으로 인해 벤처캐피탈 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많은 비상장 피투자회사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가치평가의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설립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최초 투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업 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영업환경 또는 영업실적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기술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자산 규모 120억 원 미만 등으로 외감 대상이 아닌 기업,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 업종, 규모 등이 유사한 비교 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 평가자가 상당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 평가기업의 내부정보 등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기업 등 미래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허용하는 등 벤처캐피탈의 투자 특성을 감안하여 IFRS9의 기준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현황

ISSUE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제안 일자 : 2017.7.28. / 제안자 : 김병관 의원 등 11인 / 상태 : 위원회 심사 중)

개정이유

- 현행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요건을 적용할 경우 창업,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관점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거쳐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 안정성에 치중하는 기술성 평가의 보수적인 평가 기준으로 인해 자금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기술 보유기업이 제대로 선발되지 못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요건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주요 내용

- 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규모 외에도 기업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중견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계속해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벤처 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삭제하며,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1.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1.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나. (생략)	2.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 가능 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 가능 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1) 특허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기술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4)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다목에.....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집중투표청구권의 내용

Q 회계장부 열람권의 내용

종류	소유 주식 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집중투표청구권	100분의3	100분의1

1. 의의

- 집중투표란 이사선임을 함에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대주주에 의하여 이사선임이 독점되는 것을 견제

2. 요건

-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채택¹⁾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할 것. 이 청구는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것. 100분의 3 이상의 주주의 청구가 있는 이상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음

3. 집중투표의 방법

- 위 요건을 갖추 경우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수의 의결권을 보유함(1주 1의결권의 예외)

- 최다수의 표를 얻은 자의 순으로 예정된 수의 이사가 선임됨(상법 제382조의2 제4항). 집중투표에서는 순차적으로 다수자가 선임되므로 상법 제368조 제1항의 결의요건(출석주식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은 적용되지 않음

4. 상장회사 특례

- 대규모 상장회사²⁾의 경우 집중투표를 구할 수 있는 소수 주주의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상법 제542조의7 제2항)
-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는 주주총회일 전 6주 전에 하여야 함
-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할 경우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로 제한됨



1)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



시장 동향

MARKET TREND



[illegible]

MARKET TREND

7월 신규 결성 조합 주요 현황

메 디 치

메디치인베스트먼트가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매출 규모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 바이오 제약, 신소재, 반도체 등의 기술 기업이다. 해당 펀드는 성장단계에 접어든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메디치인베스트먼트는 현재 7개의 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세컨더리 펀드가 2개이다.

서 울 투 자

서울투자파트너스는 올해 한국모태펀드의 5월 수시 출자 조합 운용사로 선정되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해당 펀드에 한국정보통신이 LP로 참여하며 20%의 지분을 갖는다. 서울투자파트너스는 창업 초기 및 지방 기업 투자 목적의 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케 이 비

케이비인베스트먼트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진행한 '제8차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사업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해당 펀드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결성되었으며,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 2017년 7월에 11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문화콘텐츠 펀드 3개, 세컨더리 펀드 1개가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메디치인베스트먼트의 '메디치중소선도기업투자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의 '서울투자 성장산업 벤처조합'이 각각 5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케이비인베스트먼트의 'KB 코넥스 활성화 투자조합'이 32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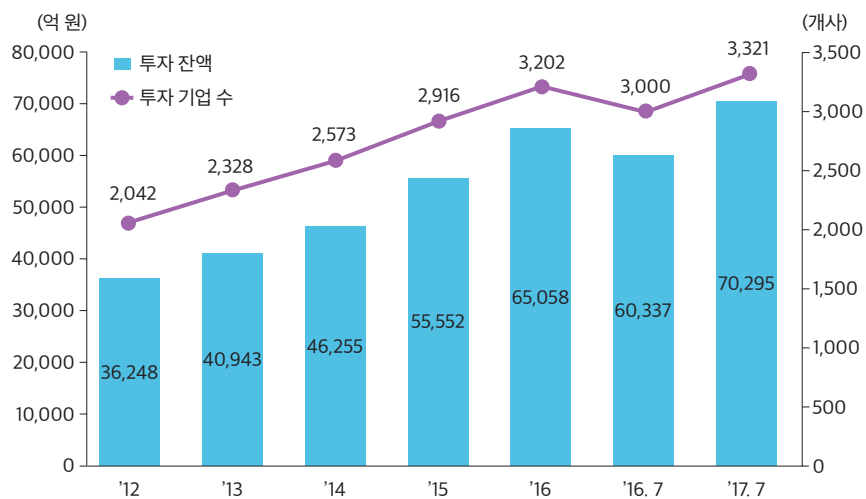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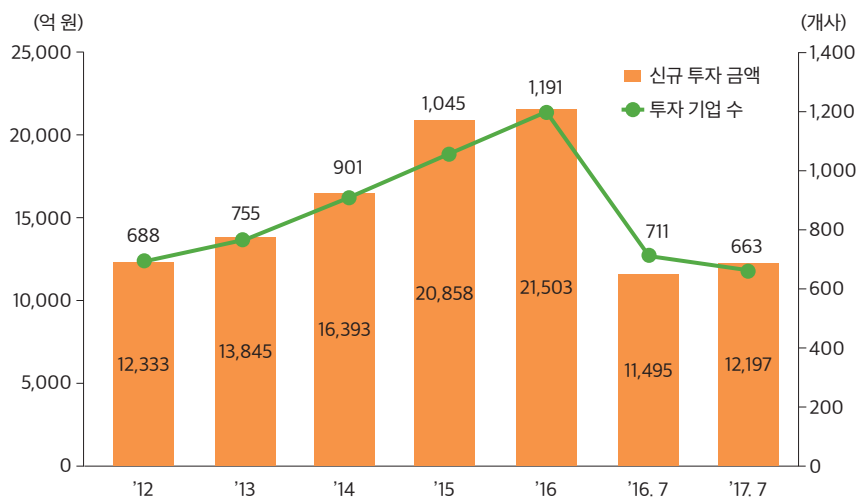
GP명	구분	조합명	결성 금액	목적 구분	투자 분야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 Beyond 투자조합(17)	232	일반	중소·벤처 일반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 Core 투자조합(17)	2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지온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지온 방송·드라마 콘텐츠 펀드	12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메디치중소선도기업투자조합	5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캐피탈원	창투자조합	캐피탈원 중저예산영화전문 투자조합 2호	24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인터밸류파트너스	창투자조합	인터밸류 고급기술인력창업 1호 투자조합	125	일반	중소·벤처 일반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창투자조합	KB 코넥스 활성화 투자조합	320	일반	중소·벤처 일반
한국투자파트너스	창투자조합	한국투자 Dream 투자조합(17)	19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이수창업투자	창투자조합	ISU-S&M콘텐츠투자조합 2호	240	문화	영상(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서울투자파트너스	KVF	서울투자 성장산업 벤처조합	500	일반	중소·벤처 일반
케이앤투자파트너스	KVF	케이앤 세컨더리3호 투자조합	40	세컨더리	중소·벤처 일반

7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신규 투자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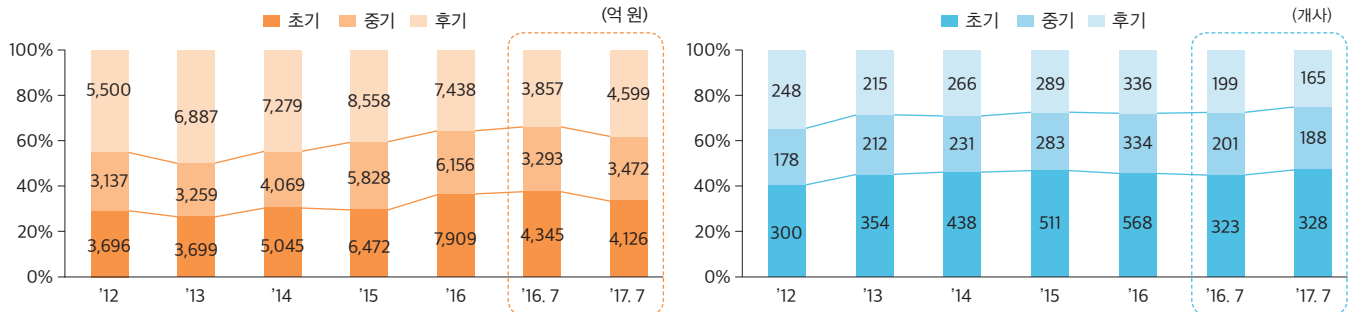
- 금년 7월까지 신규 투자는 12,197억 원으로 전년 동기(11,495억 원)보다 6.1% 증가하였고, 투자 업체 수는 663개사로 전년 동기(711개사) 대비 6.8% 감소하였다.
- 7월에는 마크프로가 297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리노스, 레인보우, 고바이오랩, 파킹클라우드, 인성메디칼, 메디오스 등의 순이었다.
- 투자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7월까지 3,321개 업체에 7조 295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MARKET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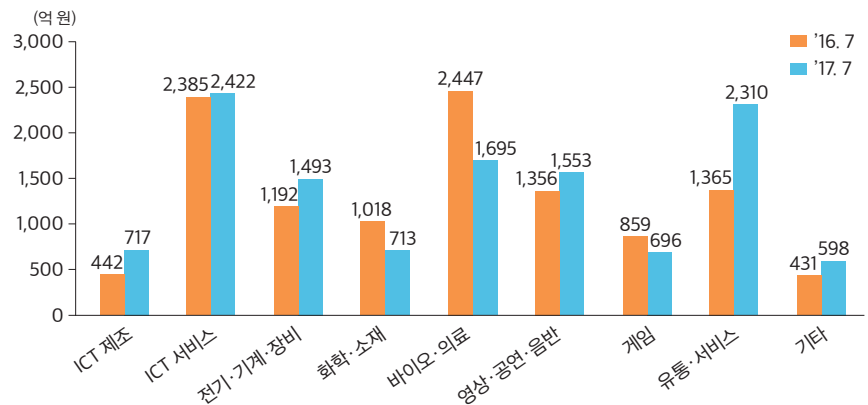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 투자

- 금년 7월까지 후기 기업 투자 비중이 37.7%로 가장 컸으며, 초기 기업 33.9%, 중기 기업 28.4% 순으로 투자가 되었다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ICT 서비스 2,422억 원, 유통/서비스 2,310억 원, 바이오/의료 1,695억 원, 영상/공연/음반 1,553억 원 순으로 신규 투자 되었으며, 유통/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9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의료 분야는 752억 원으로 가장 큰 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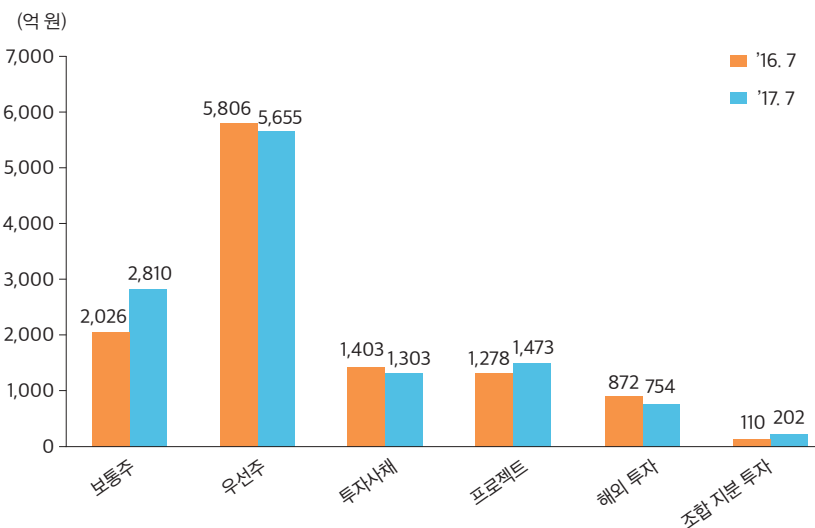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7	2017. 7
ICT 제조	2,099	2,955	1,951	1,463	959	442	717
ICT 서비스	918	1,553	1,913	4,019	4,062	2,385	2,422
전기·기계·장비	2,433	2,297	1,560	1,620	2,125	1,192	1,493
화학·소재	1,395	989	827	1,486	1,502	1,018	713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2,447	1,695
영상·공연·음반	2,360	1,963	2,790	2,706	2,678	1,356	1,553
게임	1,126	940	1,762	1,683	1,427	859	696
유통·서비스	608	1,092	2,046	3,043	2,494	1,365	2,310
기타	342	593	616	1,668	1,570	431	598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1,495	12,197

7월 벤처 투자 시장 동향

유형별·지역별 신규투자

- 투자 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5,655억 원으로 전체 투자의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2,810억 원으로 23.0%였다. 반면 해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억 원 감소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7.7%) 대비 5.3%p 증가한 23.0%로 확대되었고, 프로젝트 투자는 12.1%로 전년 동기(11.2%) 대비 0.9%p 증가하였다. 반면 해외 투자 비중은 6.2%로 전년 동기(7.6%) 대비 1.4%p 감소하였다.



(단위: 억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7	2017. 7
보통주	2,403	3,425	3,297	4,226	4,437	2,026	2,810
우선주	4,887	5,038	6,103	8,786	10,398	5,806	5,655
CB·BW	1,833	3,049	3,276	3,272	2,823	1,403	1,303
프로젝트	2,459	1,944	2,681	2,471	2,427	1,278	1,473
해외투자	751	389	1,036	1,951	1,147	872	754
조합지분 투자	0	0	0	152	271	110	202
합 계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11,495	12,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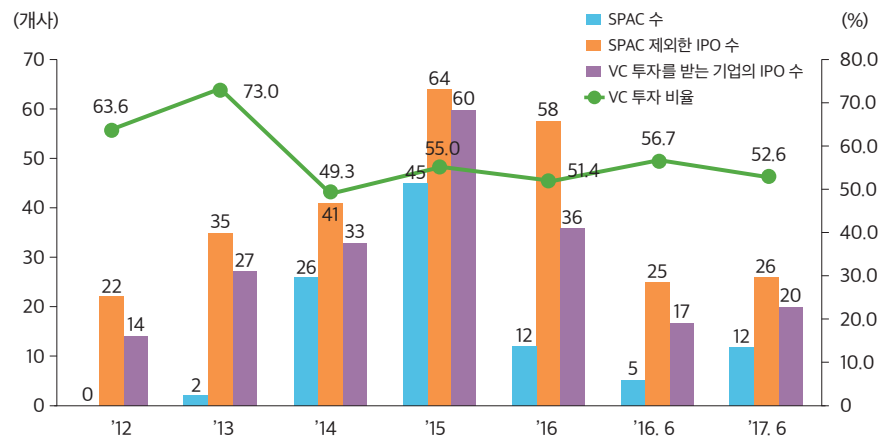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서울(55.3%)을 비롯한 수도권(78.4%) 소재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6.5%, 해외 6.2% 등의 순이었다. 해외기업에는 31개사 754억 원(6.2%)이 투자되었다.

MARKET TREND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7월까지 회수원금은 4,572억 원이며, 그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58.1%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가 17.2%, IPO 15.3%였다.
- 특히, 7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99건의 거래를 통해 784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가 747억 원(9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식상환을 통한 회수가 37억 원(4.7%)이었다.
- 7월에는 코스닥시장에 7개사(이녹스첨단소재, 아우딘퓨처스, 브이원텍, 힘스, 한국제5호 기업인수목적, 이즈미디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브이원텍, 힘스, 이즈미디어, 셀트리온헬스케어 4개사가 VC 투자를 받았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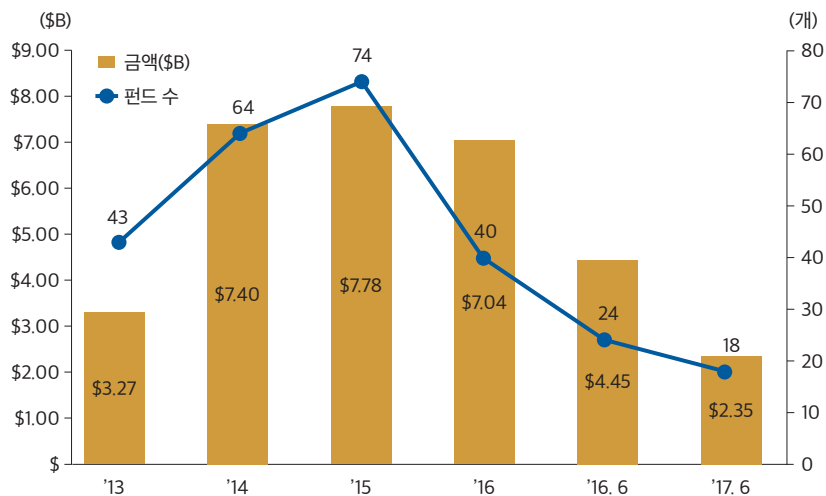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7	2017. 7
IPO	1,220	1,072	1,411	2,784	2,817	2,000	699
M&A	72	22	163	150	329	74	182
프로젝트	1,533	1,613	1,639	1,605	1,924	1,126	784
장외 매각 및 상환	주식	2,655	2,363	3,080	3,724	1,774	2,051
	채권	1,165	1,025	1,311	1,045	574	602
기타	188	736	217	342	476	155	254
합 계	6,833	6,831	7,821	10,219	10,315	5,703	4,572

(VC 포커스) 해외 2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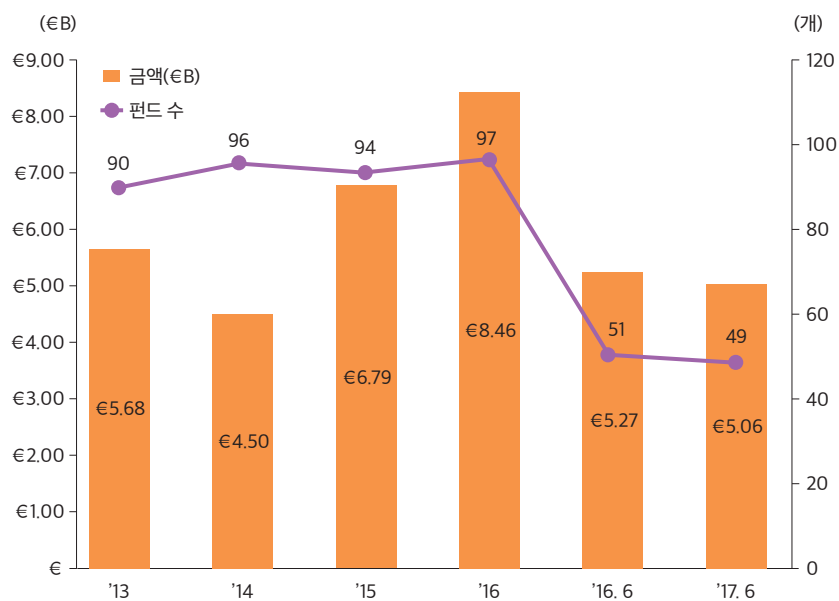
※ 자료: DOW JONES VENTURE SOURCE "Venture Capital Report, Europe", "Venture Capital Report, China"

투자 자원

- (중국) 2017년 2분기까지 18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23억 5천만 달러 (2조 6,908억 원)로 전년 동기(44억 5천만 달러) 대비 47.2% 감소함



- (유럽) 2017년 2분기까지 49개의 펀드가 신규 결성되었으며 결성금액은 50억 6천만 유로 (6조 6,045억 원)로 전년 동기(52억 7천만 유로) 대비 4.0% 감소함



- (비교) 2017년 2분기까지 펀드 결성금액은 한국이 14,163억 원으로 유럽은 한국의 4.7배 수준, 중국은 1.9배 수준임

MARKET TREND

펀드 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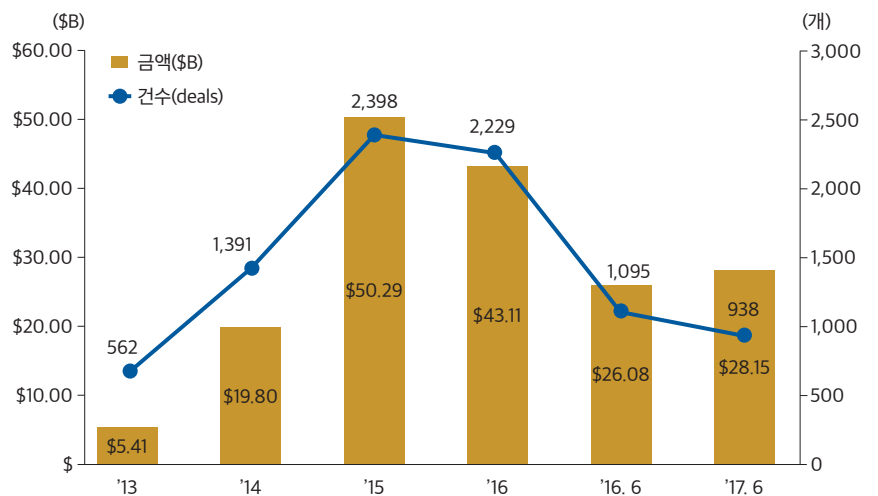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6	2017. 6
중국	37,442	84,730	89,081	80,608	50,953	26,908
유럽	74,138	58,736	88,626	110,423	68,786	66,045
한국	16,681	26,195	26,346	33,515	17,530	14,163

*환율은 2017년 6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5.00원, 1유로=1,305.24원)

신규 투자

- (중국) 2017년 2분기까지 총 938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281억 5천만 달러(32조 2,318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2분기 중국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 Didi Chuxing Technology, 공유자전거 업체인 Beijing Mobike Technology 등이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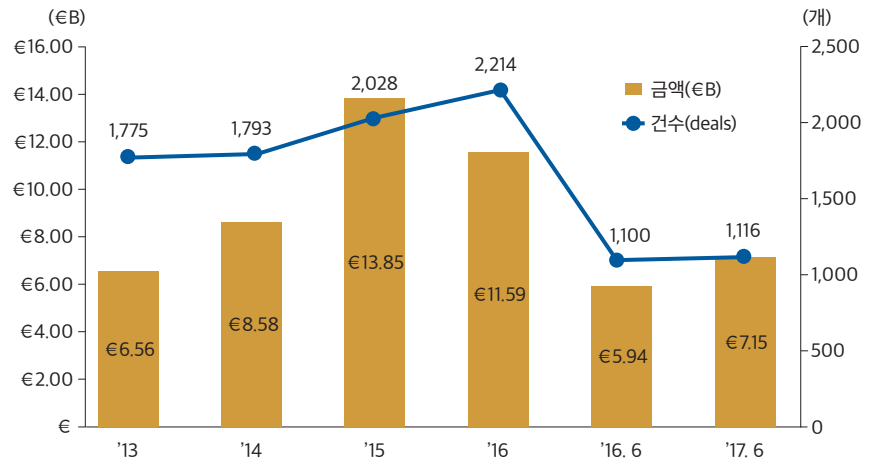
2017년 2/4분기 신규 투자기업(중국)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2017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1	Didi Chuxing Technology	5,500
2	Beijing Mobike Technology	600
3	Beijing Yixin Information Technology	580
4	Chehaoduo Used Car Agency	400
5	Shenzhou Ucar (Tianjin)	352

(VC 포커스) 해외 2분기 벤처캐피탈 통계(중국, 유럽)

- (유럽) 2017년 2분기까지 총 1,116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총투자금액은 71억 5천만 유로(9조 3,325억 원)를 기록함



- 2017년 2분기 유럽에서는 영국의 가상 현실(VR) 기술 전문 업체인 Improbable Worlds, 독일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Delivery Hero가 가장 많은 VC 투자를 받은 기업임

2017년 1/4분기 신규 투자기업(유럽)

(단위: 백만 유로)

순위	2017년 2/4분기	
	기업명	금액
1	Improbable Worlds	459
2	Delivery Hero	387
3	Farfetch UK	352
4	BrewDog	251
5	Gigaclear	131

- (비교) 2017년 2분기까지 신규 투자는 한국이 9,926억 원으로 중국은 한국의 32.5배 수준, 유럽은 9.4배 수준을 기록함

- 2013년~2016년까지의 중국의 신규 투자 연평균 성장률(CAGR)¹⁾은 99.7%로 유럽의 20.9%, 한국의 15.8%와 비교하여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신규 투자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6. 6	2017. 6
중국	61,945	226,710	575,821	493,610	298,616	322,318
유럽	85,624	111,990	180,776	151,277	77,531	93,325
한국	13,845	16,393	20,858	21,503	9,750	9,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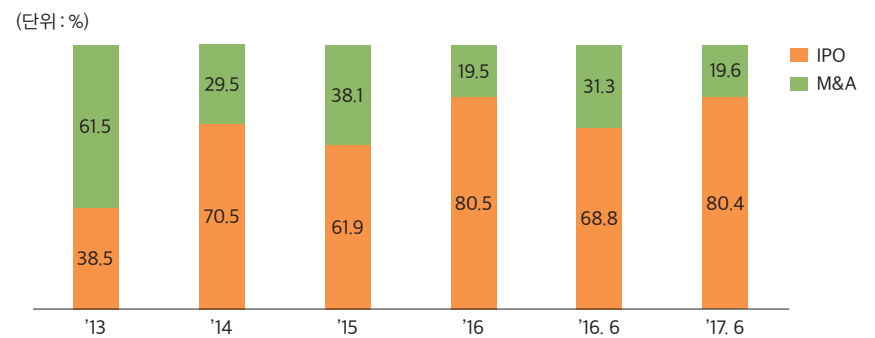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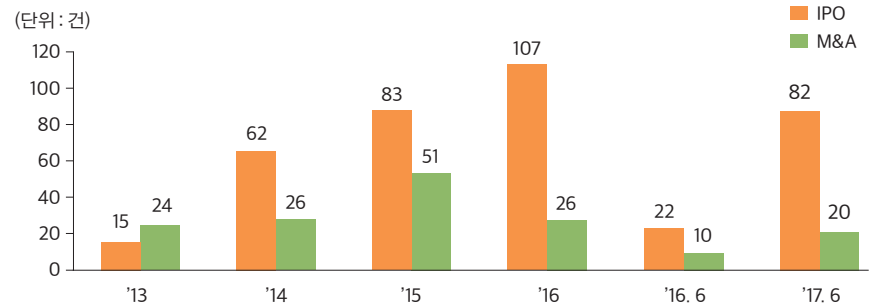
1) 연평균 성장률(CAGR)은 기하평균으로 산출하였다.

*환율은 2017년 6월 말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1달러=1,145.00원, 1유로=1,305.2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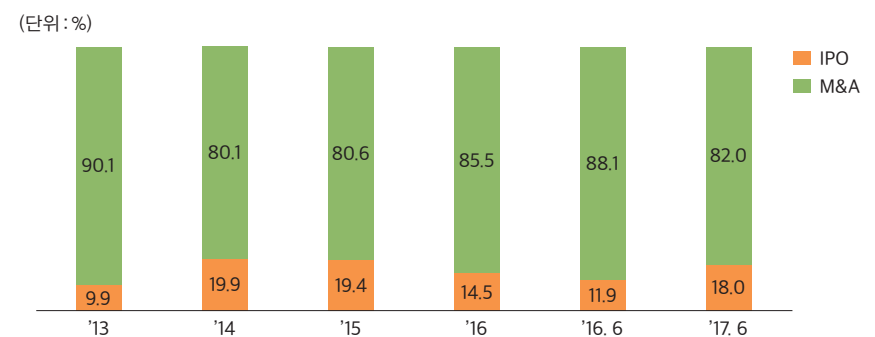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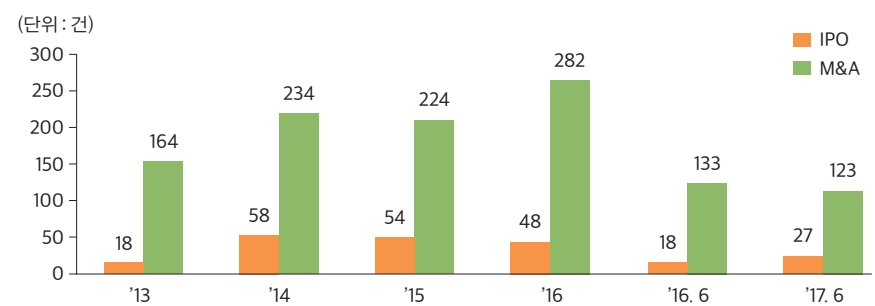
MARKET TREND

회수

- (중국) 2017년 2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82건 (80.4%)이 IPO, 20건 (19.6%)이 M&A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2017년 2분기까지 건수 기준으로 123건 (82.0%)이 M&A, 27건 (18.0%)이 IPO를 통한 회수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한국벤처투자

한국모태펀드의 2017년 3차 정시 및 8월 수시 출자사업 접수결과 신청조합 수 122개, 총 결성예정금액 48,937억 원, 출자요청액 31,451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두 개 이상 복수지원에 나선 벤처캐피탈(공동운용 포함)이 23곳으로 집계되었으며, 기존 모태펀드의 출자사업에서 신기사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과 대비 총 16곳(중복지원 포함)의 신기사가 모태펀드 자조합 결성을 제안했다.

(단위: 억 원)

구분	계정	출자분야	결성 예정액	출자 요청액	신청회사명
3차 정시	청년	청년창업	16,496	9,883	케이넷투자파트너스(유)
					(주)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신한캐피탈(주)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주)
					(주)와이지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
					제이엑스파트너스(주)
					캐피탈원(주)
					(주)엘로우독
					보광창업투자(주)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인터밸류파트너스(주)
					신한금융투자(주)
					(주)코그니티브인베스트먼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주)
					인라이트벤처스(유)
					현대기술투자(주)
					데브시스템즈벤처스(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주)
					(주)마젤란기술투자
					(주)대교인베스트먼트
					웰릭스캐피탈(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주)
					수림창업투자(주)
					큐브벤처파트너스(유)
					미시간벤처캐피탈(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영신창업투자(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유)
					스톤브릿지벤처스(주)
					(유)동문파트너즈
					DSC인베스트먼트(주)

청년	청년창업				대성창업투자(주)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3차 정시	중진	4차 산업혁명	20,889	12,808	벤처포럼인베스트(주)
					엠지인베스트먼트(주)
					동훈인베스트먼트(주)
					일신창업투자(주)
					미래에셋벤처투자(주)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주)
					KB인베스트먼트(주)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이에스인베스터(주)
					인터베스트(주)
					비오케이창업투자(주)
					시너지아이비투자(주)
					(주)KT인베스트먼트
					알바트로스인베스트먼트(주)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주)데일리벤처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
					(주)송현인베스트먼트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한국투자파트너스(주)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주)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주)케이큐벤처스
					(주)네오플렉스
					(주)코오롱인베스트먼트
					큐브벤처파트너스(유)
					비에이파트너스(유)
중진	중진	재기지원			현대기술투자(주)
					(주)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미시간벤처캐피탈(주)
					케이티비네트웍(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포스코기술투자(주)
					캐피탈원(주)
					(주)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케이디벤처스(유)
					(주)에쓰비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주)
					크리셀릭스코리아(유)
					(주)제이앤티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주)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
					(주)레오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주)
					LB인베스트먼트(주)
					(주)BSK인베스트먼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더에프인베스트먼트(유)
					가이아벤처파트너스(유)

MARKET TREND

3차 정시	중진	재기지원	9,982	7,960	(주)패스파인더에이치
					(주)이수창업투자
					어니스트벤처스(유)
					심본투자파트너스(유)
					나우아이비캐피탈(주)
					(주)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비하이인베스트먼트(유)
					지온인베스트먼트(주)
					현대기술투자(주)
					(주)원브릿지캐피탈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플래너스벤처투자
					캐피탈원(주)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주)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유)동문파트너즈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동훈인베스트먼트(주)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주)케이앤티투자파트너스					
오름투자파트너스(유)					
지방	지방기업	500	298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대덕벤처파트너스(유)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주)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중진 특허 협력	지식재산권	750	400	시너지아이비투자(주)	
				아이디벤처스(주)	
중진	KVF 결성목적	150	2	케이에스티인베스트먼트(주)	
				대덕벤처파트너스(유)	
8월 수시	스포츠	스포츠산업 육성	170	100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계			48,937	31,451	

자료 : 한국벤처투자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벤처투자를 비롯해 중형 규모 PEF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10월 28일까지 분야별로 투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까지 벤처펀드에 6개 운용사, 미드캡(Mid-Cap.) 펀드에 3개 운용사를 각각 선발해 총 6천500억원 상당을 배정할 계획이다. 벤처펀드에는 2000억원, 미드캡펀드에는 4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는 하반기 프라이빗에쿼티펀드(PEF) 및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뷰티 콘테스트(기관투자자의 출자기관 선정과정)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섹터 등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고안 중이며 수시 출자 비중도 늘릴 계획이다. 총 출자 규모는 약 3,000억 ~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격년으로 콘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벤처투자 지원 의지가 강화되어 그동안 국내 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교직원공제회 측은 새 투자 기회에 걸맞은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이에 특화된 운용사 선정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투자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시 출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8월 22일 TS인베스트먼트-KB증권(공동운용)을 대상으로 2차 구술심사를 시행한 후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운용사(7월 접수분)로 최종 선정했다.

TS인베스트먼트-KB증권은 성장 사다리펀드로부터 100억 원을 출자받아 총 500억 원 규모의 TCB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펀드 형태는 기존 창투조합이 아닌 사모투자펀드(PEF)로 조성된다. 매칭 출자에 나서는 금융사는 국민은행이다.

투자 분야는 TCB펀드의 주목적 투자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영위 기업이다.

한편 성장금융은 지난 7월 LB인베스트먼트(약정총액 500억 원)를 3차 TCB펀드 첫 운용사로 선정했다.

또한, 반도체성장펀드 성장단계 출자사업과 관련하여 2차 구술심사 이후 투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L&S벤처캐피탈을 최종 GP로 선정했다. L&S벤처캐피탈은 반도체 성장펀드와 성장 사다리펀드로부터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출자받아 최소 약정총액 600억 원 규모의 성장단계 반도체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이전 창업 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관련 중소기업이나 투자형 TCB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 8월 17일 올해 3차 수시 출자를 통해 50억 원을 출자하고 1개의 자조합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는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 결과

농림축산식품(일반)이다.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농식품모태펀드의 최대 출자비율은 50%로 50억 원을 출자받은 위탁운용사는 민간 유한책임투자자(LP)를 모집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조합을 결성해야 한다.

이에 따른 자조합의 결성 규모(총액)는 최소 100억 원이 된다. 펀드의 존속 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이상 10년 이내,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관리 보수는 투자 기간에 약정총액의 2.5% 이내며 투자 기간 이후에는 투자 잔액(분기 평균)의 2.5% 이내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등 규약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기준 내부수익률(IRR) 5% 이상(일시납 때 4% 이상)이다. 기준수익률을 넘어서면 수익의 20% 내에서 지급된다. 농금원은 매월 15일과 말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합 결성은 선정 이후 3개월 이내다.

또한, 농금원이 올해 정기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6개의 운용사 모두 펀드 결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기출자 펀드 결성까지 완료하면서 농금원의 자펀드 투자액은 총 8,000억 원을 넘겼다. 농금원은 내년 정기출자에서 농업벤처펀드와 지역특성화펀드를 새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도 PEF·VC 위탁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약정금액은 PEF 부문 총 1,200억 원, 벤처펀드 부문 총 400억 원으로 펀드 결성총액의 최대 30%까지 출자한다.

PEF 부문은 3곳 안팎의 운용사를 선정해 각각 1,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벤처펀드 부문은 약 4곳의 운용사를 선정해 각각 400억 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지원사는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으로부터 결성총액 30% 이상의 출자확약을 확보해야 한다. 펀드는 블라인드 형태로 운영되며 바이아웃 및 인수·합병(M&A), 그로스 투자, 세컨더리, 메자닌, 해외투자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는다.

지원 자격은 1,500억 원(PEF) 또는 300억 원(VC) 이상의 운용자산(청산 포함)을 보유 중인 곳으로 제한되며, 대표 펀드매니저의 운용 경력도 5년 이상 필요하다. 또 기존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사인 경우 약정금액이 60% 이상 납부된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운용(Co-

GP)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안서는 9월 1일 접수 마감하며, 이후 서면평가와 운용사 현장실사, 대면평가 등을 거쳐 9월 28일에 최종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8월 30일 KIF 자조합 운용사를 선정했다. ICT일반분야 운용사로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케이큐브벤처스가 지능정보산업분야는 한국투자파트너스, 초기창업분야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KIF 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 5곳은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모집을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5개의 펀드가 모두 결성 완료되고, 투자가 개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도가 벤처펀드 '슈퍼맨 투자조합 3호'의 위탁운용사(GP)로 네오플렉스를 선정했다.

총 네 곳의 운용사가 경합을 벌인 결과 네오플렉스가 운용사로 선정되었으며, 네오플렉스는 선정된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결성을 마쳐야 한다.

투자조합은 최소 200억 원으로 조성되며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50억 원을 출자한다. 운용사의 의무출자(GP커밋) 비율은 결성액의 10%다. 운용 기간은 투자 기간 5년을 포함해 총 8년이다. 이번 3호 펀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주목적이다. 선정된 GP는 펀드 재원 중 100억 원 이상을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중 50억 원은 △투자 이전에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투자 이후 해외 수출을 시작한 기업 △투자 이후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기업 △투자 이후 해외에 현지법인·합작법인을 운영한 기업에 투자된다.

경기도는 회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시 결성총액의 10%, 총 30억 원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한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25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벤처캐피탈 뉴스레터

VENTURE CAPITAL NEWSLETTER